

# 師陀 《馬蘭》의 서사전략과 주제의식 고찰\*

金多正\*\*

## <목 차>

1. 들어가며
2. 이상과 현실의 간극
3. 복수(複數)의 시선과 목소리의 재현
4. 삶에 대한 비판적 전망과 허무주의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작가가 되려는 저마다의 이유는 달랐겠지만 과거에도 많은 이들이 작가가 되기를 꿈꿨고 불후의 작품을 남길 수 있길 바랐다. 하지만 그 많은 작가들 가운데 시간의 마모를 거쳐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이는 오히려 많지 않다. 현대문학사를 펼쳐서 거기에 적합한 작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그 사실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문학사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군가의 이름이 포함되고 또 제외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문학사가 저술됐던 시대의 주류 담론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학사 다시 쓰기’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며 그간 문학사에서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작가들이 재조명됐을 뿐 아니라 기존의 작가들 역시 재평가됐다. 뒤늦게라

\* 본고는 2015년 1월 25일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에서 개최된 ‘首爾·京都東亞青年學者國際學術大會’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博士修了.

도 많은 작가를 새로이 발굴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師陀(1910~1988)는 줄곧 문학사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sup>1)</sup> 그러나 재미학자 夏志清이 《中國現代小說史》(1979)에서 따로 장을 할애하여 그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그와 함께 거론됐던 張愛玲이나 錢鐘書에 대한 관심만큼은 아니었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작품을 연구하게 됐다.<sup>2)</sup> 師陀가 일궈낸 문학적 성취에 비춰보면 그의 작품에 관해서 보다 많은 풍성한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sup>3)</sup>

師陀는 河南省 출신이다. 그래서 그는 北京이나 上海 같은 대도시의 젊은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신사상을 접할 수 있었다. 師陀는 동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혁명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北京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었고 1936년 上海로 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창작을 계속했다. 師陀는 혁명이나 구국의식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착실하게 구축해나갔다.

師陀의 대표작 대부분은 1930, 40년대에 창작되었다. 師陀의 작품은 크게 혁명소설, 향토소설, 도시소설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향토소설이 그 분량도 가장 많고 그 성과 또한 빼어나다고 평가된다. 師陀는 北京과 上海에서의 생활을 밑거름으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結婚》(1947)과 《馬蘭》(1948)을 창작했다. 이 두 작품에는 그의 도시 생활에 대한 체험이 담겨있거니와 그의 문학세계를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포함돼 있다. 따라

- 
- 1) 師陀는 등단 후 한동안 '蘆焚'이라는 필명을 사용해서, '蘆焚'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2) 1980년대 들어서 師陀에 관한 소논문이 발표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학위논문도 발표되었다. 解志熙는 《摩登與現代：中國現代文學的實存分析》(北京：清華大學出版社，2006)에서 師陀의 작품 여러 편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했다. 특히 師陀의 향토소설을 높게 평가하였다. 錢理群도 <試論蘆焚的“果園城”世界> (信陽師範學院學報，1990年 第1期)에서 師陀의 소설집 《果園城記》를 분석했다. 미국 학자 Edward M. Gunn은 《被冷落的謬斯：中國淪陷區文學史(1937~1945)》(北京：新星出版社，2006)에서 師陀의 소설, 희곡 등 주요 작품을 분석했다. 이밖에도 馬俊江，劉增傑，王欣 등 학자도 師陀의 작품을 분석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 3) 국내에 師陀 관련 논문으로는 師陀의 향토소설을 분석한 김다정, 《師陀 향토 소설의 작가의식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師陀의 희곡을 분석한 <《밤주막 夜店》의 주제의식 고찰>(《인문학연구》 97호(2014))이 있다.

서 이들 작품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馬蘭》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작품이 師陀의 첫 장편소설이라는 데 있다.<sup>4)</sup> 단편소설로는 이미 세간의 인정을 받았던 師陀에게 장편소설은 작가로서의 새로운 도전이었던 셈이다.<sup>5)</sup>

師陀는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소설에서 일관되게 주변부에 속하는 인물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의 작품은 영웅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 이는 스스로를 ‘보통사람’이라고 여긴 작가 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師陀는 계몽이나 사회 변혁 같은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師陀는 다만 분명한 작가의식을 갖고 인간의 운명을 탐색하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 즉 나약하고 소외된 존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는가가 그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특정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다. 사회에 대한 비판 역시 그의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馬蘭》은 여러 인물형상을 통해 인간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부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에는 北京에서의 작가의 체험이 녹아있다. “사회성과 시대성이 매우 강한 제재를 선택했고, 그가 그린 인생의 비극은 모두 사회적, 시대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sup>6)</sup>라는 평가는 師陀 작품이 가진 특징을 잘 보여준다. 師陀는 장편소설 《馬蘭》을 집필하기 전 이미 단편 <馬蘭>(1936)을 완성했다. 그는 후에 이것을 다시 장편으로 수정하여 짧은 편폭으로는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주제를 담아냈다.<sup>7)</sup> 단편이 여성의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면 장편으로 와서는 단순히 여성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주제의식을 녹여내게 된다. 단편에서는 李伯唐 한 사람의 시선에 의지해 이야기를 끌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장편에서

4) 《馬蘭》은 1942년 완성됐지만,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1948년이다. 《結婚》(1947)은 그 뒤에 창작됐지만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馬蘭》에 비해 더 빨랐다.

5) 師陀는 단편소설집 《谷》으로 何其芳(《畫夢錄》), 曹禺(《日出》)와 함께 1937년 5월, 《大公報 文藝副刊》의 문예상을 수상했다.

6) 劉納, <師陀創作的藝術個性>,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84년 3期, 157쪽.

7) 이 작품은 구상에서 완성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는 馬蘭과 또 다른 화자를 소환해 작품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馬蘭》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주목받지 못한 작품이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한 발 더 나아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馬蘭》에서도 작가의 향토소설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논문들은 주로 여성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고는 이 작품을 읽기에 따라 남성 주인공의 성장, 즉 남성 주인공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馬蘭》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서사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작가가 작품에 담아내고자 한 주제의식을 검토하려 한다.

## 2. 이상과 현실의 간극

《馬蘭》은 ‘馬蘭’이라는 한 여성의 성장—그녀가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다시 시골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가장 큰 줄거리로 하고 있다. 이 소설의

8) 그의 다른 장편소설 《結婚》이 성공을 거두고 많은 주목을 받은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馬蘭》에 대한 관심은 덜했다. 師陀의 《馬蘭》을 부분적이지만 중요하게 또는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래와 같다. 《馬蘭》을 단독으로 분석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趙江榮, <革命敘事的悖論: 師陀《馬蘭》對意識形態壓抑的揭示>, 《上海師範大學學報》 第38卷 第1期(2009)가 있고, 《馬蘭》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분석할 만한 시각을 제공해주는 단행본은 아래와 같다. 耿德華(Edward M. Gunn) 著, 張泉 譯, 《被冷落的謬斯: 中國淪陷區文學史(1937~1945)》(北京: 新星出版社, 2006); 解志熙, <現代中國“生活樣式”的浮世繪: 師陀小說敘論>, 《摩登與現代: 中國現代文學的實存分析》(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6); 王欣, 《師陀論》(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1); 楊義, 《中國現代小說史》 下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6); 師陀의 《馬蘭》을 서술기법 측면에서 다른 작품과 함께 분석한 논문 가운데 참고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郝魁鋒, 《論師陀小說創作的形式特徵》,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2004); 倪燕, 《講故事的人: 師陀小說的敘事技巧研究》, 清華大學 碩士學位論文(2004); 張磊, 《師陀小說的敘事特徵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11); 焦玉蓮, <師陀三部小說的敘事特徵分析>, 《山西師範學院學報》 1998年 第1期; 邱麗平, <敘述與意義: 論師陀小說《馬蘭》與《結婚》的敘事藝術>, 《長春工業大學學報》 第18卷 第4期(2006); 殷衛星, <論師陀的長篇小說>, 《信陽師範學院學報》 第14卷 第1期(1994).

줄거리만 보면 전형적인 혁명소설의 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설에서 馬蘭은 몇몇 남성을 잇달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과 헤어져 다른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다. 이것이 이 소설의 전부라면 이 소설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흥미로운 점은 혁명소설의 줄거리를 차용하고 있되 혁명을 고양하지 않는 작가의 태도에 있다. 작가는 혁명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행동을 낱낱이 분석해 보여주면서 그것이 가진 허구성을 드러낸다. 그렇다고 작가가 혁명의 무용(無用)을 역설하고 있지도 않다. 여기서 '혁명'과 '이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 역시 그것의 무용을 역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집단과 이데올로기에 가려진 개인의 욕구, 욕망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師陀는 향토소설에서 그랬듯이 《馬蘭》에서도 인물들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한다. 그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여성 주인공인 馬蘭이다. 馬蘭은 순수하고 건강한 생명력을 가진 여성이고 강한 반항심을 갖고 있다. 또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馬蘭이 겪는 모든 고난은 그녀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마치 짓밟힐수록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잡초처럼 시련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sup>9)</sup>

소설에서 馬蘭 못지않은 중요한 인물이자, 이 소설의 화자인 李伯唐은 점잖고 예의 바르고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소설에서 李伯唐은 무척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들로 인해 馬蘭의 사랑을 받게 된다. 李伯唐의 친구이자 馬蘭과 동거하는 喬式夫는 겉보기에는 점잖지만 위선적인 인물이다. 그는 馬蘭을 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9) 師陀의 말에 따르면 '馬蘭'은 그의 고향에서 여름이면 지천으로 피어나는 들꽃의 이름이다. 그는 여간해서는 잘 죽지 않는 그 들꽃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진 여성 형상을 그리고자 했던 것이다. 師陀, <談《馬蘭》的寫成經過>, 劉增傑, 《師陀研究資料》(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09), 82쪽.

도구로 여긴다. 그는 馬蘭을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지만, 정작 馬蘭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馬蘭은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한 혼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喬式夫에게 도움을 청해 집에서 탈출한다.<sup>10)</sup> 두 사람은 K시로와 동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喬式夫는 馬蘭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더러 일에만 전념한 채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또 馬蘭의 의사는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고, 나중에 그녀가 임신을 하자 단호하게 아이를 지우라고 한다. 그녀는 이 일로 그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실망하게 된다. 馬蘭은 비록 아버지의 집에서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시 남편의 집에 갇히고 만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집으로부터의 탈주를 꿈꾼 결말은 비극일 수밖에 없었다.

馬蘭은 애정 없는 결혼 생활에 불만을 갖게 됐고, 이는 그가 喬式夫의 친구인 李伯唐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된다. 李伯唐은 숨 막히는 결혼생활의 위안이 되어준다. 李伯唐은 喬式夫와 전혀 상반된 인물인 데다 그 역시 馬蘭에게 호감과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喬式夫에게 속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는 李伯唐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한다. 후에 馬蘭은 喬式夫와 아이를 포기하고 李伯唐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李伯唐은 그런 그녀를 매몰차게 거절한다. 李伯唐도 馬蘭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친구의 동거녀

10) 師陀는 선생을 따라 도망치는 여학생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를 전해 듣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의 스토리를 구상했다고 한다. 師陀의 다른 단편소설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다룬 것이 있다. “나는 예전에 이러한 일을 직접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다. 그녀들은 환경으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희망에 고무되었고 어떤 학생은 자신의 선생을 따라 도망치기도 했다. 남녀 모두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거나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기에 결국은 쌍방 또는 어느 한 쪽이 실망하게 되었다. 어쨌든 같은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에 근거하여 馬蘭의 역사를, 나의 상상력을 전개해 나갔다.(先前我見過也聽說過不少這種事情, 她們被環境逼迫或被希望刺激, 有的學生跟她們的先生逃出去了。男女雙方都有我的熟人, 他們自然不會為他們的將來詳細思考準備, 結果雙方或一方感到失望。這是一樣的。我根據這種事情展開馬蘭的歷史, 或是說展開我的想象。)” 師陀, <<馬蘭>>成書後錄>, 劉增傑 編, <<師陀研究資料>>(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09), 63쪽.

인 데다가 아이까지 있었기에 그로서는 도저히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sup>11)</sup> 그에겐 애정보다 도덕관념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馬蘭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李伯唐에게마저 거절당하자, 결국 “누구라도 타인에게 어떤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생활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sup>12)</sup>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결국 그녀는 喬式夫, 李伯唐 두 사람 모두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喬式夫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은 그가 자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李伯唐을 사랑하게 됐지만 그 역시 기대와 달리 자신을 위해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소설에서는 馬蘭이 두 사람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상세히 묘사돼 있다. 馬蘭은 더 이상 남자에게 의지해 달콤한 미래를 꿈꾸는 순박한 시골 여성이 아니라 자각적인 여성으로 탈바꿈한다. 그녀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에 오른다. 그렇기에 馬蘭은 자신을 짝사랑하는 陽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한다.

그(陽春)의 본성은 선량하다. 그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저지를 수 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평범한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그는 타락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동화될 일도 없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랑스러운 구석이다. (...중략...) 그러나 나는 그를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는 그를 형제로서 대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뛰어난 점이라고 없고, 나는 그를 조금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3)</sup>

- 11) “나는 그녀를 매우 자세히 살펴봤다. “그녀는 정말인지 사랑스러웠다!” 나는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동시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알고 보니 순결하지 않은 여자이고 게다가 뜻밖에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사랑스러움이 오히려 내게 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我看她看的极仔細, “她的确可愛!” 我在心裏贊嘆, 同時又想起這個如此可愛的人, 却是不清潔的女人, 并且還是我的愛人. 她的可愛反而更加教我厭惡.)” 師陀, 《馬蘭》, 《師陀全集》 第3卷(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4), 341쪽.
- 12) “一个人不該向別人要求, 更不該靠別人生活……” 師陀, 《馬蘭》, 위의 책, 386쪽.
- 13) “他本性是善的, 能做好事, 却也能做壞事. 一生以平凡人始, 也將以平凡人終. 他所以不腐爛, 不被人家同化, 只是因為天性上要求更好的生活, 這也就是他可愛的地方. (...중략...) 我永遠不會愛他, 雖然我明知道討厭這個人不公平, 雖然他信實可靠, 我也只能把他當兄弟看待. 因為

馬蘭이 陽春을 선택하지 않은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성에게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체적으로 남성을 선택하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게 갖고 있다. 나아가 남성에게 의존해 생활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직접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자립을 꿈꾼다.

馬蘭은 단순히 여성을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명력을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馬蘭과 같은 강인한 여성형상은 師陀의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師陀는 다른 작품에서 남성에게 억압당한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 형상을 줄곧 묘사했기 때문이다. 단편 <馬蘭>은 馬蘭이 집을 떠나는 데서 끝난다. 그러나 장편에 와서 馬蘭이 집을 떠나 겪게 되는 사건들이 묘사된다. 그녀는 외부의 억압과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강인한 태도를 보여준다. 소설 속 다른 인물들이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현실에 굴복하고만 데 반해 馬蘭은 자신의 이상(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분투한다. 그녀는 혁명 또는 이데올로기 같은 '대(大)'를 위해 개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喬式夫 같은 인물을 향해 항변한다. 소설의 큰 줄거리만 놓고 보면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작가는 독특한 서사전략을 취함으로써 소설에 여러 겹의 의미를 부여한다.

### 3. 복수(複數)의 시선과 목소리의 재현

단편소설 <馬蘭>이 李伯唐 한 사람의 서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장편은 馬蘭의 서술과 <小引>을 끼워 넣음으로써 보다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師陀는 작품의 화자를 특히 중시했다. <馬蘭>에서의 화자 李伯唐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식인 화자가 등장한다는 것 외에도 독

他沒有勝過我的地方，我對他毫無敬意。” 師陀，위의 책，385쪽.

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 《馬蘭》은 줄곧 서술기법 측면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다.<sup>14)</sup>

《馬蘭》은 <小引>과 1~4권,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小引>의 화자는 老季이고, 1, 2권의 화자는 李伯唐, 3권에서는 馬蘭이 갑자기 화자로 등장했다가, 4권은 다시 李伯唐이 화자로 등장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師陀가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師陀는 우선 화자와의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 <小引>을 추가한다. <小引>은 책의 맨 앞부분에 배치됐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나중에 쓰였다.<sup>15)</sup> <小引>에서 '나(老季)'는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인 李伯唐을 만나 그로부터 원고 하나를 건네받는다.<sup>16)</sup> 그 원고에 적힌 것이 바로 李伯唐과 馬蘭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이처럼 촘촘하게 짜인 구조를 통해 여러 서술자의 시선과 다양한 목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더해 <小引>의 '나'가 李伯唐을 통해 '馬蘭'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이를 다시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야기에 껴진함을 더해 준다. <小引>의 '나'와 馬蘭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小引>의 화자인 老季는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소설의 문을 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北平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李伯唐을 만난다. 온 얼굴이 먼지투성이인 데다가 수염은 깎지 않은지 오래인 듯 보이고, 등까지 살짝 굽은 데다 옷을 아무렇게나 대충 걸친 李伯唐의 모습은 화자인 '나'를 놀라게 한다. '나가 놀란 것은 李伯唐을 우연히 마주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색 때

14) 師陀는 《馬蘭》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대표작이자 장편소설인 《結婚》에서도 역시 다양한 시점을 운용했다. 《結婚》은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권은 주인공 胡去惡의 서신으로, 하권은 전지적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여가고 있다. 이 소설은 신소설의 요소인 서신체와 구조설의 특징인 전지적 시점을 한데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이처럼 師陀가 다양한 시점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馬蘭》과 《結婚》 두 작품이 모두 장편이라는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단편에 비해 호흡이 긴 장편에서는 이러한 양식을 시험하기가 보다 용이했기 때문이다. 倪燕, 《講故事的人: 師陀小說的敘事技巧研究》, 清華大學 碩士學位論文(2004), 9쪽 참고.

15) 《馬蘭》은 1941년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小引>은 1942년에 쓰였다.

16) 師陀는 '師陀'라는 필명 외에도 여러 필명을 사용했는데, 그 가운데 '季孟'이라는 필명도 있었다. 여기서는 작가가 '季孟'이라는 필명을 염두에 두고 '老季'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이었다. 李伯唐의 행색은 화자가 그를 못 본 사이 많은 풍파를 겪었음을 알려준다. ‘나’는 李伯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헤어졌고, 李伯唐이 다음날 사람을 통해 보내온 원고를 읽고서야 비로소 李伯唐이 그간 겪은 일들에 대해 알게 되고 한동안 놀라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줄곧 李伯唐이 행운아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해에 불과했다.

나는 그 후로 다시는 李伯唐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北平을 떠났다.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후로 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모종의 신념을 갖고 있다. 이 신념은 충분한 이유가 없음에도 줄곧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동요된 적도 없다. 나는 그가 언젠가 그의 고귀한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놀랄 만한 일을 해내리라고 굳게 믿는다. 이는 다른 이유 때문에서가 아니라 다만 그가 영원히 평안하길 바라고, 그가 운명에서 승리하길 바라고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가 생명을 담보로 그의 행운을 시험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리라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그에게는 모두 피차일반이다. 다만 그와 비슷한 모든 이들이 평안을 얻길 바랄 뿐이다.<sup>17)</sup>

<小引>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小引>을 읽고 누구나 이어지는 글에서 李伯唐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1, 2권에서 李伯唐은 ‘馬蘭’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李伯唐은 자신이 어떻게 馬蘭을 만나게 되고, 친구의 동거녀인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또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서술의 초점은 줄곧 ‘나’가 아닌 ‘馬蘭’에게 맞춰져 있다. 하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 이것은 馬蘭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곧 李伯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뒷부분에 가서 드러난다.

거기에 더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老季)’가 알고 있던 李伯唐의 모습, 李

17) “以後我沒有再看見李伯唐，不久我就離開北平，直到現在—現在他在什麼地方？他作什麼？我不知道，也從不會得到他的任何消息。不過我有一種信念，即使并無充分理由，這種信念也始終沒有離開過我，始終沒有動搖。我深信終有一天，他會作出某種驚人舉動，同他的高貴精神符合。不是，不是爲別的緣故，而是爲了使他自己永遠安靜下來，使自己在命運之前得到勝利。另外也許更有一種可能，單單爲試驗他的命運，他破釜沉舟，把生命當作賭注。這個人是一樣的，但愿一切和他類似的人能得平安。” 師陀，위의 책，282쪽.

伯唐 스스로가 말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馬蘭의 일기(제3권)에서 馬蘭이 바라본 李伯唐의 모습이 전부 다르게 드러남으로써 과연 어떤 것이 진짜 李伯唐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을 남긴다. 세 사람의 시선에 전혀 다르게 비춰지는 李伯唐은, 李伯唐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나(老季)'에게 비춰진 李伯唐, 李伯唐 자신이 말하는 李伯唐, 馬蘭에게 비춰진 李伯唐이 모두 합쳐져 '李伯唐'의 진짜 모습이 구성된다고 봐야 한다.<sup>18)</sup> 어찌면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에 李伯唐이 馬蘭의 일기를 통해 자신의 일면을 발견(주시)하게 되는 장면은 무척 흥미롭다.

李伯唐은 馬蘭을 서술하는 관찰자인 동시에 馬蘭에게 관찰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李伯唐이나 馬蘭 모두 관찰하는 주체이자, 관찰당하는 객체인 것이다. 《馬蘭》이라는 소설은 이처럼 '나'가 바라보는 세계와 '나'를 바라보는 세계로 구성돼 있다. 그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판명할 방법이 없다. 소설의 관심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 '진실', 즉 다양성에 있다. 사실 객관적 '진실'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은 사건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 동일한 '사건'을 두 사람의 '시선'과 '서술'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소설에서 馬蘭과 李伯唐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소설은 여러 접점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만약 이 소설이 줄곧 李伯唐의 서술로만 구성됐더라면 馬蘭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馬蘭의 목소리를 부각시킬 의도로 그녀를 중심으로 일인칭 시점에서 소설을 전개했다라면 이 소설은 그저 단순한 馬蘭의 성장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李伯唐을 화자로 내세우면서 이 이야기는 馬蘭의 이야기이

18) 馬蘭이 본 李伯唐이 그의 본 모습이라고 평가한 연구자도 있지만, 이런 분석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합쳐진 총체가 李伯唐의 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師陀가 단순히 馬蘭을 통해 李伯唐의 허위성을 드러내고자 이런 서술 구도를 취한 것이라고 본다면 소설의 다른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李伯唐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게 된다. 李伯唐의 이야기로 읽었을 때 소설의 의미도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난다.

馬蘭의 일기는 또한 李伯唐의 서술에서의 공백을 메워줌으로써 의문으로 남겨졌던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sup>19)</sup> 馬蘭의 일기에는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그녀만의 시선이 담겨 있다. 즉, 李伯唐이 서술했던 이야기를 그녀의 시각에서 다시 서술한 것이다. 그렇기에 일기를 읽고 나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어떤 오해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지가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난다. 한 연구자는 작가가 이러한 서술 시점을 채택한 이유가 일인칭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sup>20)</sup> 李伯唐은 줄곧 제한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느라 馬蘭의 내면을 알 수 없다. 師陀는 馬蘭의 일기를 추가함으로써 독자는 물론 李伯唐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일기를 통해 李伯唐은 비로소 馬蘭의 진심과 둘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알게 된다. 馬蘭을 사랑했던 그조차도 그녀에 대해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소설의 제4권에서 馬蘭이 말을 타고 산을 누빈다는 이야기는 李伯唐을 통해 전해짐으로써 보다 신비로운 색채가 더해진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과장의 색채가 더해진 것이다. 아래에서 ‘요괴’와 ‘여자 사령관’은 전연 상반된 평가이다. 이 역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서 도시에는 온갖 소문이 돈다네(사실 부근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네). 그들은 馬蘭을 비바람을 부를 수 있는 요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녀를 산속에 수만의 병사를 갖고 있는 여자 사령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sup>21)</sup>

19) 倪燕, 《講故事的人: 師陀小說的敘事技巧研究》, 清華大學 碩士學位論文(2004), 12쪽.

20) 張磊, 《師陀小說的敘事特徵研究》(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22쪽; 師陀는 일인칭 서술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 “나는 책 속의 인물인 ‘나’, 즉 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의 귀로 듣고, 그의 감각으로 느끼고, 반드시 그를 따라야만 했다. 그의 활동 범위 내에서 소설을 써야 했고,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 그는 그의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고, 습관과 취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자신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師陀, <《馬蘭》成書後錄>, 劉增傑, 《師陀研究資料》(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09), 66쪽.

21) “因此城裏有種傳說(附近的老百姓全知道), 他們把她當成能呼風喚雨的妖怪, 又說她是個女司

흥미로운 것은 李伯唐 역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馬蘭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는 李伯唐 역시 독자와 큰 차이가 없다. 李伯唐 역시 제한적 시점에서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한 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 이 부분에서의 여백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진 것이다. 師陀는 소설에 최소한의 공백을 남겨둠으로써 미학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馬蘭의 출로에 낙관적 희망을 부여한다. 그렇기에 馬蘭의 이러한 결말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sup>22)</sup>

또 언급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師陀가 세 명의 화자를 내세워 이야기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그 자신은 소설과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고 뒤로 물러난 채로, 작가의 시선과 목소리가 아닌 등장인물의 시선과 목소리를 부각시킨다. 이는 작품의 진실성을 확보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독자들이 작품에 개입할 수 있게 했고, 작품과의 거리감을 줄여주었다.

게다가 소설 전체가 과거를 회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특히 李伯唐의 서술 부분에서는 깊은 참회의식이 엿보인다. 회상 식의 서술은 그 자체로 과거를 반추하고 성찰하는 의미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sup>23)</sup> 그런 이유로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화자의 변화와 심정—대개는 후회스러운 감정—을 주로 묘사하게 된다. 師陀는 ‘시간’의 불가역적인 성질에 주목했다. 소설에서 시간의 이러한 성질은 중요한 서술적 장치이다. 그렇기에 李伯唐을 비롯한 모든 인물은 과거에 했던 선택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또한 두 사람이 하나의 사건을 되풀이해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비극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令, 在山裏頭有幾萬兵馬。” 師陀, 《馬蘭》, 앞의 책, 425쪽.

22) 馬蘭의 모호한 결말은 작가의 고민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師陀의 다른 소설에서 여성들은 자살하거나, 몸을 팔게 되는 데없이 절망스러운 상태로 내몰린다. 師陀는 인간이 자신의 선량함이나 고귀한 성품과는 무관하게 비참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비극에 주목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을 동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고귀한 영혼으로 묘사했으며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는 그의 일관된 문제의식이다.

23) 焦玉蓮, <師陀三部小說的敘事特徵分析>, 《山西師範學院學報》 1998年 第1期, 42쪽.

師陀는 이처럼 여러 화자의 시점과 회상 식 구조, 액자소설의 틀을 활용하여 소설에 팝진함을 더하고, 복수(複數)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소설의 다성적 성격을 확보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한계, 삶의 상대성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제까지는 작가의 서사전략이 어떻게 자칫 평범해질 수 있는 이야기에 극적인 효과를 더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이어서는 소설 속 화자인 李伯唐과 馬蘭, 그리고 주요 인물의 하나인 喬式夫를 비롯한 인물 형상을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4. 삶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허무주의

소설 《馬蘭》은 193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그 시기를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시대는 소설에서 주목하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소설의 관심은 특정한 시대의 흐름에 매몰된 보편적 감정과 개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데 있다. 한 개인의 삶은 그가 살아가는 시대의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시대를 살든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보편적인 감정들이 있다. 자아실현 욕구나, 사랑, 소소한 욕망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회에서 우선시되는 가치들에 의해 무시되기 일췌이다.

師陀는 그의 대표작인 향토소설에서 향토세계를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그곳은 도시와 대비되는 건강한 생명력, 아름다운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억압하는 뒤틀린 공간으로 묘사됐다. 그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고통과 그 원인을 드러내 보여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파헤친다. 도피처나 바람직한 인간상이 부재한 탓에 비극의식과 허무의식은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조가 된다. 하지만 그러한 주제의식 이면에 인간에 대한 연민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작품의 한

특징이다.

師陀는 《馬蘭》에서 각기 다른 세계관을 대표하는 인물 형상<sup>24)</sup>을 통해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또는 굴복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진실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喬式夫는 관념적인 지식인을 대표한다. 그는 일 지상주의자로 “인류의 최고의 미덕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여기며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간다. 그는 책을 읽거나 번역하고, 글을 쓰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다른 사람의 눈에 喬式夫의 삶은 기계처럼 반복되고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喬式夫가 馬蘭을 도운 이유는 그녀를 사랑하거나 동정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혁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喬式夫는 그녀의 처지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馬蘭을 혁명의 ‘예비군’으로 만들겠다는 그는 그녀를 데리고 도망친 날 밤에 그녀를 강간하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데려와 동거를 시작한다. 喬式夫에게 馬蘭은 그저 성적 욕망의 대상일 뿐이다. 喬式夫는 馬蘭의 생각이나 욕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강요한다. 더군다나 나중에 馬蘭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지우라고 한다. 결국 馬蘭은 그러한 喬式夫를 떠난다.

喬式夫는 馬蘭에게 혁명과 관련된 이론서를 읽으라고 권하며 그녀를 혁명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馬蘭은 그가 건네준 책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馬蘭은 혁명의 인도자인 喬式夫를 존경하지도 그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다. 喬式夫가 자신을 데리고 도망쳤을 때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자유와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그저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馬蘭은 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이내 깊은 증오를 품고 그에게 끝끝내 대립하고 반항한다. 馬蘭이 이론서를 읽으려고 노력할 때 그 내용은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李伯唐의 얼굴만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馬蘭에게 喬式夫가 이론

24) 殷衛星은 《馬蘭》에서 李伯唐과 馬蘭, 喬式夫 세 인물이 각각 삶(생활), 애정, 일지상주의자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殷衛星, <論師陀의長篇小說>, 《信陽師範學院學報》第14卷 第1期(1994), 81-86쪽 참고.

서 같은 존재라면 李伯唐은 친근하고 다정한 존재이다.

나는 오늘 그(李伯唐: 인용자)의 서가에서 톨스토이의 《부활》을 봤다. 예전에 소설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내게 소설은 이론서에 비해 쉽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소설은 교훈적이지 않아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론서는 목사 같은 느낌이었다.<sup>25)</sup>

馬蘭은 喬式夫를 이론서에 빗대어 이야기한다. 그녀가 보기에 喬式夫가 하는 말에는 생생한 경험이나 현실적 의미라곤 담겨있지 않다. 그렇기에 馬蘭은 그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울뿐더러 그에게 거리감만을 느낄 뿐이다.

李伯唐은 소부르주아적 기질을 지닌 청년이다. 그는 늘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에 태도 역시 부드럽고 신사적이며 온화한 성품을 지닌 지식인이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온 그는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오만하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조화로운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는 자신의 직업에 그럭저럭 만족하며 喬式夫 같은 마르크스주의 자들과 어울려 지내지만, 딱히 혁명에 대한 열정도 없다.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그가 일과 사랑에서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게 만든다.<sup>26)</sup> 馬蘭의 눈에 비친 李伯唐과 喬式夫는 외모마저도 사뭇 대조적이다.

그(李伯唐)의 아름다움은 그만의 고유한 것이다. 아름다움을 그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 만약 [그의 아름다움: 인용자]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해도 보기 싫을 것이 분명하다. 그의 걸음걸이나 말하는 자세에서 그의 뉘뉘이가 시원시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일처리에 능하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일처리에 능하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딱히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이다.) 喬 선생과 李伯唐이 함께 서있노라면 喬 선생은 빛을 잃고 초라한 것이 가련할 지경이다.<sup>27)</sup>

25) “今天站在他書架前面，看見一部小說：托爾斯泰的《復活》，從前我看過文學書，却從來不曾想到，小說原來比理論書更容易和我接近。因為它沒有教訓氣息，和它對面，如對朋友，不是理論書的像個牧師。” 師陀，위의 책，368쪽.

26) 解志熙，〈現代中國“生活樣式”的浮世繪：師陀小說敘論〉，〈摩登與現代：中國現代文學的實存分析〉(北京：清華大學出版社，2006)，237쪽.

馬蘭의 눈에 이처럼 매력적으로 비친 李伯唐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정의나 도덕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물이다. 그는 喬式夫처럼 입으로만 혁명을 말하고 그것을 추종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진정으로 혁명에 몸을 던질 수도 없는 인물이다. 李伯唐은 현실과 이상, 도덕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그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마저 잃고 만다. 李伯唐의 실패는 그의 도덕적 강박감과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그의 문제는 본연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李伯唐은 분명 喬式夫와 대비될 만큼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馬蘭은 앞서 언급했듯 들꽃처럼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자, 사랑에 최고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다. 그녀는 심지어 가정이나 아이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그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馬蘭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녀의 욕망은 목적 없는 쾌락이나 타락으로 치닫지 않는다. 李伯唐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그녀가 경멸해마지않던 도덕이라는 가치 앞에서 침몰하고 말지만, 그녀는 李伯唐을 떠나 또다시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하고, 새로운 모험을 위해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난다.

소설에서 주로 묘사하고 있는 세 남녀는 이처럼 각기 어떤 세계관을 대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 앞에 놓인 운명에 맞선다. 운명은 세 사람 모두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지만 세 사람은 그것에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 소설에서 가장 동정이 필요한 사람은 李伯唐일지 모른다. 이는 <小引>의 화자 ‘나’의 생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李伯唐과 같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적었다. 李伯唐은 喬式夫처럼 비겁하지도 않지만 馬蘭처럼 용감하지도 않다. 그는 馬蘭을 사랑하지만 정작 그녀가 도움을 청할 때 손을 내밀어 주지 못했

27) “他的美是他個人獨有的，不能分開，不能送人，放在別人身上只有難看。從他走路和說話時的姿勢上，可見他為人瀟灑，很會辦事。（我說辦事，實在因為找不到恰當字眼。）喬先生和他站在一起，真是暗然無光，猥瑣極可憐極了。” 師陀，《馬蘭》，앞의 책，361쪽.

다. 그녀가 喬式夫와 아이를 버리고 李伯唐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만다. 하지만 李伯唐은 馬蘭의 일기를 읽고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녀를 찾아 떠난다.

작가에 의하면 이 소설의 최초의 집필 동기는 “네가 예전에 포기한 것을 결코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다.”<sup>28)</sup>라는 말에 있다고 한다. 李伯唐은 뒤늦게야 馬蘭은 그가 진정 바랐던 사랑이고, 그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깨달음을 얻은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다.<sup>29)</sup> 李伯唐은 馬蘭을 잃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다시 馬蘭을 되찾는 데 실패한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작은 실마리를 뒤쫓아 이곳저곳을 떠돌며 그녀를 찾아 헤맨다. 그렇게 헤맨 끝에 그녀와 우연히 재회하지만, 이번에는 馬蘭이 그를 단호히 거절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행운은 늘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에 뒤따르는 변치 않는 공식도 있다. 실패가 반드시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다. (...중략...) 날이 어두워졌다. 나무도, 뜰도, 모두 어둠에 잠겼다. 마지막엔 결국 창가에 앉아있는 나만 홀로 남았다.<sup>30)</sup>

소설의 마지막에 위와 같은 李伯唐의 탄식은 그의 처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사람들은 늘 그를 행운아로 여겼다. 겉보기에는 그가 별다른 노력 없이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넣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행운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만다. 師陀는 “운명이란 인간의 인식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인생을 조롱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여겼다. 李伯唐은 충분히 영웅적이며 고귀

28) 師陀, <《馬蘭》成書後錄>, 劉增傑, 《師陀研究資料》(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09), 64쪽. (原載: 《文藝雜誌》第2卷 第3期(1943年 3月 15日.)) 여기서 ‘너’는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람)’ 정도로 보는 것이 옳다.

29) 이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보기에 따라 馬蘭의 성장뿐 아니라, 李伯唐의 성장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데 있다. 李伯唐이 갖은 시련을 겪고, 각성을 하게 되며 길을 떠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점에서 그러하다.

30) “凡我所到的地方, 幸運必然等我, 隨後是個不變的公式, 失敗也必然跟蹤而至 (...중략...) 天早黑下來了, 樹木, 園子, 小山, 全被夜色淹沒, 最后剩下了坐在窗前的我自己.” 師陀, 《馬蘭》, 앞의 책, 436쪽.

한 영혼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일, 그 어느 것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李伯唐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위 인용문에서의 ‘어둠’은 삶에 대한 師陀의 비관적 전망으로 봐야 한다. 馬蘭의 아이가 죽는 것 역시 작가의 그러한 비관주의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喬式夫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에게 속한 신성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나의 신성한 일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sup>31)</sup>라는 李伯唐의 절규에는 이상의 환멸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무력감이 짙게 깔려있다.

하지만 馬蘭의 결말은 師陀의 비관주의와 다소 배치된다. 삶에서 행운이 따르는 줄 알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만 것은 馬蘭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는 처음에 정략결혼을 피해 자유를 찾아 떠났다. 하지만 자신을 구원해 준 인물이 또 자신의 삶을 구속하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절망한다. 그러던 중에 李伯唐을 사랑하게 됐고 그녀는 또 그가 자신의 구원자가 돼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에게마저 버림받으면서 馬蘭은 자신의 행운(사랑)이 기실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馬蘭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은 자주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온전히 자신에게 속하는 삶을 꿈꾸게 된다. 다른 인물들의 결말을 보면 馬蘭의 시도도 실패로 끝났어야 옳다. 그러나 馬蘭은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녀는 몇몇 남성을 거쳐 결국에 자신이 원하던 이상형을 만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馬蘭의 낙관적 결말은 소설의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소설이 李伯唐의 서술로 마무리 되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馬蘭’은 李伯唐이 좇는 ‘이상’ 또는 ‘환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상을 좇아 부단히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환멸로 끝나고 만 이야기가 된다. 즉 그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자의 이야기다. 삶에서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던 그가 어느 날 비로소 자신이 삶에

31) “喬式夫說人各有自己的神聖事業，那麼我的神聖事業在哪裏？” 師陀, 《馬蘭》, 앞의 책, 435-436쪽.

서 모든 걸 던져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설사 실패로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李伯唐의 시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맞설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고귀하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李伯唐의 성장과 모험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다.

당시 師陀의 관심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전쟁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었다. 師陀의 시선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벗어나 인간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혁명을 외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외치던 그들이 결국 삶의 무의미를 깨달을 순간이 올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師陀는 이데올로기가 내면의 갈등을 봉합해 준다는 도식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탐색했던 것이다. 소설에서 주인공들을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진다. 이처럼 師陀는 개개인의 삶으로 눈길을 돌려 운명과 고투를 벌이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 비록 그들의 실패는 불가피한 것이라도 해도 그것에 맞서는 태도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는 점이 《馬蘭》이 가진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5.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현대문학사에서 뒤늦게야 주목을 받게 된 師陀의 작품 가운데 장편소설 《馬蘭》의 서사전략과 그 주제의식을 고찰하였다. 師陀는 향토소설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도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편소설 《馬蘭》을 남겼다. 그 배경만이 다를 뿐 도시소설에서도 그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師陀는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비판했고, 여러 각도

에서 인간의 운명을 성찰한 작가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는 인간에 대한 비판과 풍자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다고 봐야 옳다. 그의 작품에서의 인물 형상 대부분은 '실패자'인 보통 사람들이다. 《馬蘭》에서의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다.

師陀는 서사기법에도 무척 주의를 기울였는데, 소설 내에서 일인칭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확보하고자 했다. 師陀는 일인칭 시점에 의해 가려진 면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또 다른 화자를 소환해 다른 시각에서 같은 사건을 서술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은 뒤로 물러난 채 인물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여러 시선과 목소리가 뒤엉킨 복잡한 상황은 그 자체로 세계의 복잡성과 상대성을 재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師陀는 작품에서 삶의 무의미를 깨닫고 그저 무력하게 배회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그렸다. 師陀는 모두가 어떤 특정한 사상에 쏠려 그것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진 허무를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허무와 비판주의가 깊게 배어있다. 운명은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무엇이다. 師陀는 인간이 처해 있는 각각의 상황을 깊이 성찰했고 그 성찰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불가해한 운명과 고투를 벌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고투에서 늘 실패를 맛보아야 했던 인간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어쩌면 《馬蘭》에서의 세 인물(李伯唐, 馬蘭, 喬式夫)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일면을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師陀는 글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는 문학에서 특정 유포를 따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말하려는 것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나는 어떤 이가 문학에 종사한다면, 그 사람의 임무는 한 유포를 이루거나 방법론을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본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지극히 명백한 도리겠지만,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곧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sup>32)</sup>

32) 師陀, <《馬蘭》成書後錄>, 《師陀全集》 第8卷(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4), 262쪽.

師陀에게 글쓰기란 자아 완성의 여정이기도 했다. 그래서 글쓰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음에도 창작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해도 글쓰기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는 인간에게 연민과 관심을 갖고 사회를 비판하고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착실히 기록했다. 《馬蘭》은 작가의 그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 < 參考文獻 >

- 師陀, 《師陀全集》 第2卷,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4.
- 師陀, 《師陀全集》 第3卷,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4.
- 師陀, 《師陀全集》 第8卷,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4.
- 고점복, <연애와 계몽의 이중 변주: 루쉰의 <傷逝>論>, 《중국어문논총》 제40집, 2009.
- 안재연, <“리엔아이”(戀愛), 신여성, 근대성의 이데올로기: 중국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38호, 2006.
- 줄고, <<밤주막 夜店>의 주제의식 고찰>, 《인문학연구》 97호, 2014.
- Edward M. Gunn 著, 張泉 譯, 《被冷落的謬斯: 中國淪陷區文學史(1937-1945)》, 北京: 新星出版社, 2006.
- 顧廣梅, 《中國現代成長小說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1.
- 劉增傑, 《師陀研究資料》, 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09.
- 唐小兵 編, 《再解讀: 大眾文藝與意識形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 楊義, 《中國現代小說史》 下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6.
- 王欣, 《師陀論》,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1.
- 夏志清, 《中國現代小說史》, 香港: 友聯出版社, 1979.
- \_\_\_\_\_, 《中國現代小說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5.
- 解志熙, <現代中國“生活樣式”的浮世繪: 師陀小說敘論>, 《摩登與現代: 中國現代文學的實存分析》,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6.

- 郝魁鋒, 《論師陀小說創作的形式特徵》,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 倪 燕, 《講故事的人: 師陀小說的敘事技巧研究》, 清華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 張 磊, 《師陀小說的敘事特徵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焦玉蓮, <師陀三部小說的敘事特徵分析>, 《山西師範學院學報》1998年 第1期.
- 劉 納, <師陀創作的藝術個性>,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84年 3期.
- 邱麗平, <敘述與意義: 論師陀小說《馬蘭》與《結婚》的敘事藝術>, 《長春工業大學學報》第18卷 第4期, 2006.
- 殷衛星, <論師陀的長篇小說>, 《信陽師範學院學報》第14卷 第1期, 1994.
- 趙江榮, <情感/欲望: 師陀長篇小說對情感/欲望啓蒙的堅守>, 《西北民族大學學報》2007年 1期.
- \_\_\_\_\_, <革命敘事的悖論: 師陀《馬蘭》對意識形態壓抑的揭示>, 《上海師範大學學報》第38卷 第1期, 2009.

### < Abstract >

#### A Study on the Narrative Strategy and Thematic Consciousness of Shi Tuo's *Malan*

Kim, Dajung

This paper explores the narrative strategy and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Shi Tuo's novel *Malan*. *Malan* is Shi Tuo's first full-length novel. In this novel, one can find thematic consciousness that consistently penetrates other works by Shi Tuo. In his novels, one can discover elements of social criticism, but it is evident that he was more captivated by the fate of man in this work. Shi Tuo described not heroes, but ordinary people; and he was critical of humans' weaknesses at the same time showed a deep compassion for them.

*Malan* describes the growth and failure of three men and women and demonstrates that the fate of an individual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they were living. No matter how hard humans struggle, they are not free from their fates nor from the society to which they belong. Nevertheless, humans do not blindly accept nor despair at their fates, but rather have the nobility to fight their fates. Deeply-entrenched futility and pessimism are distinctive of Shi Tuo's work. However, *Malan* demonstrates a sense of optimism that is usually lacking in his other works. This work depicts a generation that has lost its values, and a man who has lost his ideals and wanders helplessly. Furthermore, the novel portrays Shi Tuo's deep insight into life and a sense of futility, which have transcended time and still are meaningful to the present.

Key words: Shi Tuo, *Malan*, narrative, revolution, destiny, thematic consciousnes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 31.	2018. 3. 9	2018. 3. 15.	2018. 3. 17.	2018. 3. 31.